

문재인 “상생·평화 대한민국 만들겠다”

대선 출마 선언…“개발독재 청산·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안철수 원장 출마 선언 임박설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7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내 주자는 손학규 전 대표,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오는 24일, 김두관 경남지사와 김영환 의원도 대달 중순 이전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 고문은 17일 오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보통사람이 주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한명숙 전 대표, 문희상·김태년·유기홍·홍영표·김경협·김현·도종환·박남춘·박범계·배재정·서영교·전해철·진선미·최민희 의원과 백운우 전 의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정철 전 대통령 흥보기획비서관, 김경수 전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 등 친노인사들이 축출동했다.

문 고문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뒤 왔지만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이 주인이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며 “시장독재 모델을 극복하고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실종된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도 5년 임기 중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서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참여정부에서 개발, 통상을 강화한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며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뒤틀어보면 조금 더 국론을 모아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반성이 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분배와 재분배 강화, 인적자본 투자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국경을 넘는 협력적 성장 등 4대 성장전략을 통한 획기적 국가발전, 강한 복지국가, 일자리 혁명, 강한 대한민국·평화로운 한반도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고문은 연설이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명박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것처럼 양같음을 한다든지 끄집어준다든지 할 일은 아니다. 평가는 엄중하게 상대를 인정하며 경쟁하겠지”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지난 15일 고향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독립공원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 남해군을 마지막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18개 시·군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21~24일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출마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내 대선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응합

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더 이상 주저하다가는 지지층의 이탈은 물론 ‘지도자감이 아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이석기 발언 논란 확산

지난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오전 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거점대학 연계 모범사례 기업인 우리로광통신을 방문한 뒤 광주 광산 갑 지역위원회 대의원 간담회를 갖고 상경할 계획이다. 손 전 대

표는 또 19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에 들려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15일 국립 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현화, 분향한 뒤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어제 6·15 12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희호 여사와 내빈들에게 ‘DJ 같은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토론회에 가보지 않고 자료만 봤다. 솔직히 내용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며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인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리랑을 부를 수도 있다”며 “나는 아리랑이 좋더라”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네이버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 “어느나라 국회의원이나”라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증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경매투자

- ▶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 ▶ 입찰반4명 / 회비 550만원
- ▶ 특수물건만 취급

자본주 모집 (10억 이상)

새누리 당원 명부 유출 감찰 착수

非朴주자 ‘공정경선’ 의문 제기…전문위원 영장

새누리당이 최근 당원 220만명 명부유출 과문과 관련, 진상조사와 내부감찰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대책팀장은 검사 출신의 재선 박민식 의원이 맡고, 김태원 사무2부총장과 조직총무·홍보국장이 참여한다.

대책팀은 유출된 당원명부를 관리

하고 있는 당 조직국 9명에 대한 개별 조사부터 착수했다. 이들 9명은 당원 명부가 보관된 컴퓨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당원 명부를 유출한 당 이 모수석전문위원이 당시엔 청년국장이어서 서버 접근권이 없었던 점에 비

춰 내부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대선 경선의 비박계 주자들이 당원명부 유출로 ‘공정경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엔 “우려하는 바가 없진 않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긴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와 2위 후보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선률을 확대가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도 이날 황 대표에게 국민 100%의 선거인단으로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박주 중 한 명인 정몽준 의원은 “현 상태에서 황우여 대표가 공정한 경선관리인이라는 데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황 대표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황우여, 非朴대권주자 연쇄 회동

경선률 의견 조율…임태희 “선거인단 50만명 확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대권 도전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나는 등 비박주 대주들과 연쇄 회동에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경선률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몽준 의원은 면담을 거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황 대표는 전날 비박주 중 처음으로 이재오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여의도 당시에서 임 실장을, 김 지사와 잇따라 회동했다.

임 전 실장은 면담을 직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대로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을 50만명으로 확대하고, 1위

정가 라운지

김동철, 전·노 추징금 징수법 발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 가족들에게 은닉한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현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은닉된 불법재산을 찾아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532억원만 납부해 미납 추징금이 전체의 75.9%인 1673억원에 이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중 91.2%인 2397억원을 납부했다.

이낙연 “기초노령연금 확대해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기초노령연금 확대 논의를 위해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발의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정록·박주선·황주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조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개하고 연금액을 확대해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영순, 어업종사자 조세특례 추진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7일 어업 종사자들을 조세특례 대상자로 분류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영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업의 경우 어업물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해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어업은 2000만 원 이하 어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비과세 대상이 돼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 시장, 주요 당직 인선 완료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5일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조광한·정병재씨를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노인위원장엔 주병진, 장애인위원장엔 장용환, 노동위원장엔 박래원, 대학생위원장엔 박지훈, 직능위원장엔 빙성수, 지방자치위원장엔 염동의, 교육연수위원장엔 김영우씨가 각각 임명됐다.

또 상근당직자로 정책실장에 김용집, 흥보실장에 유택열, 총무국장에 박진규, 조직국장에 전영남, 조직부장에 박순선씨를 각각 배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제주도 현지 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 마진을 돌려드립니다]

목포&녹동(고흥)출발

제주도 여행 2박 3일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등록번호 : 616-81-682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목포 119,000원
녹동 142,000원

가족끼리, 친목, 산악회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제주여행 다시찾을 수 있는 제주무궁화 관광이 되립니다~

목포출발